



金仁吉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2실장)

## 1. 최근 유가 동향과 사우디의 석유 정책

계절적 非需期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 건설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OPEC(석유수출국기구) 평균 유가는 금년 1월 10일(배럴당 \$15.88)의 바닥이후 1/4분기 중 \$15.8-16.5를 유지해 왔으나 2/4분기이후 \$17-19를 나타내고 있다(表-1 참조). 최근의 유가 수준을 두고 일부의 반응은 「급등」 혹은 「高油價 시대의 到來」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이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생각된다. 1990년 1/4분기의 국제 유가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OPEC 평균 18달러)이었다. 당시 세계 석유소비는 연평균 1-2%씩 증가하는데 추가 공급의 대부분의 OPEC에 의존할 수밖에 없

어 국제 유가는 중장기적으로 상승(연평균 실질 가격3%)한다는 견해가 유력하였다. 그리고 1990년 1/4분기의 유가 수준은 산유국이나 소비국 모두에게 받아 들여지는 적정 유가 수준으로 간주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 후 국제 유가는 OPEC내 시장 점유율 확대파(사우디, 쿠웨이트, UAE)와 가격 인상파(이라크, 이란, 리비아)간의 갈등으로 '90년 2/4분기에 \$13까지 폭락하였고, 이를 빌미로 발생한 걸프 사태 기간중 36달러까지 폭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걸프 전쟁 終戰 이후에는 다시 高油價에 대한 반작용으로 16-18달러의 비교적 낮은 유가 수준이 금년 1/4분기까지 계속되었다. '92년 2/4분기는 걸프사태를 전후하여 왜곡되었던 과거 2년간의 유가 수준이 그 영

〈表-1〉 현물유가와 국내 도입단가 (\$/B, FOB)

	WTI	Brent	Dubai	OPEC 평균	도입단가
1989	19.64	18.23	15.65	16.56	15.81
1990	24.34	23.46	20.26	21.27	20.00
1991	21.50	20.07	16.54	17.70	18.55
1992					
1월	18.83	18.16	15.20	16.15	17.24
2월	18.98	18.15	15.72	16.43	16.32
3월	18.89	17.51	15.70	16.14	16.35
4월	19.88	18.88	16.62	17.18	
5/1(금)	20.88	19.90	17.39	17.53	
5/8(금)	20.88	19.79	17.31	17.96	
5/15(금)	20.72	19.82	17.48	18.00	
5/22(금)	20.82	19.88	17.77	17.89	
5/29(금)	22.11	21.04	18.72	18.91	

**수급측면에서 볼때 국제석유시장은 3/4분기에는 수급균형이 예상되나 4/4분기에는 1백만B/D의 공급부족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국제유가는 下方 경직성이 뚜렷한 가운데 3/4분기 18~19달러, 4/4분기 19~22달러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향에서 벗어나서 원래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OPEC 동향과 유가 움직임은 앞으로의 석유 시장 향방에 주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이를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92년 2/4분기의 유가 상승은, 수급에 있어서 우려되었던 공급과잉이 OPEC의 잇단 유가 방어책(2월 및 4월의 監視委, 5월의 총회에서 감산 또는 쿼타 동결 합의)으로 해소되고 있는데다가 최근 중동에서 빈발한 일련의 긴장 고조(리비아 사태, 이스라엘-레바논-시리아 충돌, 이란-이라크 충돌)로 심리적 상승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월 20-21일의 제91차 OPEC 총회이후 국제 유가는 1달러 정도 급등, 5월 29일에는 18.91달러로서 작년 11월 22일 이래 최고 가격을 기록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유가 급등은 OPEC 총회에서 나타난 사우디의 태도가 「高油價를 지지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91차 OPEC 총회(5월 21-22일, 비엔나)의 합의 내용

요지는 「1992년 3/4분기 생산 상한은 현재의 2298.2만 b/d(국별 쿼타 배정 없음)를 연장 적용하되, 쿠웨이트의 추가 생산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우디 주장에 따라 큰 몫의 생산 상한 증대(100만 b/d)가 합의될 것이라는 석유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OPEC는 3/4분기까지 현 쿼타를 연장 적용(쿠웨이트 증산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사우디 측은 3/4분기 對 OPEC 원유 수요가 2,420만 b/d로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하면서 생산상한도 2,400만 b/d로 증대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이란과 리비아 등(3/4분기 對 OPEC 원유 수요 2,270만 b/d 주장)은 생산 상한의 동결을 강조하였다. 이번 총회의 특징은 총회에 임하는 사우디의 태도가 변화된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Nazer 사우디 석유장관이 사전 통고없이 OPEC 총회에 불참하고 한 단계 낮은 대표가 대리 참석했다. 또 전종과는 달리 이번 총회 중 사우디는 自國 주장 관철에 소극적이었으며, 이란 그룹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하였다. 사우디측은 총회 직후 「3\$/B 정도의 유가인상은 세계 경제회복에 부담이 되지 않고 석유수요 증대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사우디측이 총회 직후 언급한 「3\$/B 정도의 유가인상」은 우연히도 현재의 복합적인 여러 상황과 부합되고 있다.

(1) 최근 EC는 내년부터 3\$/B의 에너지/탄소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OPEC를 주도하는 사우디는 6월의 지구환경개발회의를 겨냥하여 에너지/탄소세 부과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가를 올리고 있다는 견해, (2) OPEC의 목표 유가(최저 기준 유가 21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1차 총회 당시보다 3달러 정도의 유가 인상이 필요

〈表-2〉 세계 석유수급 실적 및 전망

(단위 : 백만 B/D)

	1991				연간	1992				
	1/4	2/4	3/4	4/4		1/4	2/4	3/4	4/4	연간
수 요	67.4	65.0	65.2	67.7	66.4	68.0	65.1	65.9	68.1	66.8
· OECD	38.6	36.9	37.2	39.1	38.0	39.3	37.0	37.7	39.5	38.4
· 非OECD	28.9	28.1	27.9	28.6	28.4	28.7	28.1	28.2	28.6	28.4
공 급	67.2	65.9	66.6	67.6	66.8	67.3	65.7	66.1	67.9	66.8
· 非OPEC	42.1	41.3	41.0	41.4	41.4	41.2	40.6	40.6	40.9	40.8
- OECD	16.5	15.8	16.1	16.6	16.3	16.8	16.2	16.3	16.7	16.5
- 구소련	10.9	10.6	10.2	10.0	10.4	9.6	9.4	9.2	9.0	9.3
- 기 타	14.7	14.9	14.7	14.8	14.7	14.8	15.0	15.1	15.2	15.0
· OPEC NGLs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 OPEC(원유)	23.1	22.6	23.6	24.2	23.4	24.1	(23.1)	(23.5)	(25.0)	(24.0)
在庫變動	-0.2	+0.9	+1.4	-0.1	+0.4	-0.7	+0.6	+0.2	-0.2	0.0

註) 1. 공급은 정제손실(1.4백만b/d) 및 OPEC의 콘덴세이트 포함

2. OPEC 공급은 對 OPEC 원유 수요(Call on OPEC Crude) 개념

〈資料〉 OIL MARKET REVIEW(IEA, '92.5.7), MEES('92.3)

하기 때문에 상기 발언을 했다는 견해 등이 모두 타당하다.

이러한 사우디의 태도변화가 「고유가 정책 선회」 또는 「기본적인 시장정책(저유가, 시장세어 확대)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된다. 사우디는 현재까지 OPEC의 목표 유가(최저 기준 유가 21달러) 달성에 부정적이었으며 유가는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줄곧 유지해 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피력된 사우디의 태도는, 향후 수요 증대에 따른 점진적 유가인상을 인위적으로 막지는 않되, 국제 유가가 목표 유가 수준(21달러) 이상 급등할 때는 増産 등으로 유가 안정 조치를 취할 것으로 해석된다. 걸프 전쟁 종전 이후 사우디는 18달러 내외 유가에 만족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20달러 내외를 적정 유가 수준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 2. 1992년 하반기 국제 유가 전망

2/4분기 세계 原油需要는 6,510만 b/d, 供給은 6,570만 b/d로 60만 b/d의 재고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즉 현재의 수급 상황은 다소 공급 초과 상황인데도 견실한 유가가 유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중동 정세 불안과 사우디의 유가 정책 변화 움직임이 심리적 강제로 작용하고, 하반기의 석유 수급이 팽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하반기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계절적 영향으로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對 OPEC 원유 수요는 3/4분기 2,350만 b/d, 4/4분기 2,500만 b/d로 전망되는데 소비국의 재고 정책(선취 물량 확보)에 따라서 3/4분기 수요는 추가로 늘어날 여지가 있다(表-2 참조).

한편 공급전망을 보면, 이번 총회의 생산상한(2,298만 2천 b/d) 동결 합의에도 불구하고 3/4분기 OPEC 원유 생산은 쿠웨이트의 증산(30만 b/d) 및 사우디 등 일부 국가의 쿼타 초과 생산을 고려할 경우 2,350~2,400만 b/d 수준이 예상된다. 이라크의 수출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4분기 생산 역시 2,400만 b/d 수준이 유력하다. 현재 석유 추가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사우디, 이라크 등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수급 측면에서 볼 때 국제 석유시장은 3/4분기에는 수급 균형이 예상되나 4/4분기에는 공급 부족(100만 b/d)이 예상된다. 향후 국제 유가의 완화 내지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변수로서는 이라크의 본격적 석유 수출再開, 리비아 사태 해결 등 중동 정세의 긴장 해소를 들 수 있으나 하반기중 이들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다고는 기대할 수 없다. 반면, 국제 유가의 상승을 초래할 변수로서는 중동 정세의 급변, CIS의 政情 불안, 북해 유전 사고 가능성, 寒波 내습 등 석유 시장의 돌발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

서 향후 국제 유가는 下方 硬直性이 뚜렷한 가운데 OPEC 평균 유가 기준으로 2/4분기 18달러 내외, 3/4분기 18-19달러, 4/4분기 19-22달러 수준을 나타낼 것이 유력하다(表-3 참조).

## 3. 중장기 국제 유가 전망

'89년의 세계 석유소비는 65.8백만B/D이었다. 향후 2010년까지 세계 석유소비 증가율은 1차 에너지중 가장 낮은 연평균 0.9%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소비는 開途國이 연평균 1.3%의 견실한 증가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거나 OECD는 0.7%/년, (구)소련은 정체상태가 예상된다. 그 결과 세계 석유시장에서 차지하는 開途國의 비중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중의 石油의존도는 '89년의 39.2%에서 2010년에는 35.6%로 감축될 전망이다.

한편 세계 석유공급능력은 향후 2010년까지 연평균 0.4-0.9% 증가에 불과하여 석유소비 증가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석유의 剩餘 공급능력은 제한되는데 이는 油田事故, 재해 혹은 전쟁 등 우발적인 공급장애에 대한 석유공급 불안을 가중시킴으로써 油價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2000년 이후 수출능력을 보유한 OPEC 국가는 현재의 13개국에서 5-6개국으로 줄어들게 된다. 에콰도르, 가봉은 석유자원 고갈로 생산중단 상태, 인도네시아는 국내 소비 증가로 수출여력을 상실할 전망이다. 사우디, 쿠웨이트, UAE,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 6개국이 OPEC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非 OPEC의 산유량(구

---

**중장기적으로 국제원유가격은 연평균 3% 내외의 실질가격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다. 2000년 이후는 '90년 불변 가격으로 배럴당 23~40달러의 高油價 수준이 예상된다.**

---

공산권 포함) 또한 정체 내지 감소가 예상된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 국제 원유가격은 연평균 3% 내외의 (1.3-4.4%) 실질가격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 석유 공급압박과 이에 따른 OPEC의 油價 결정력 확대로 2000년 이후는 '90년 불변가격으로 배럴당 23-40달러의 高油價 수준이 예상된다(表-4 참조)

중장기적으로 볼 때 OPEC와 소비국간에 경제적 이해 관계 상충에 따른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地球 溫暖化 문제의 克服策으로 에너지/炭素稅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EC는 '93년부터 \$3/Boe(a barrel of oil equivalent)의 탄소세를 도입하되 이를 매년 \$1/Boe씩 증액하여 2000년

에는 \$10/Boe까지 賦課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탄소세가 도입이 확산되면 OPEC로서는 많은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초래된다.

OPEC측은 에너지/탄소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基本案) ; 2005년의 세계 원유 생산은 OPEC 35.7백만 b/d, 비 OPEC 24.6로 전망하고 있다. 2005년의 세계 원유 생산에서 차지하는 OPEC 점유율은 59.2%, 2005년의 OPEC 석유판매 收入은 '91년 불변 \$2,226억이 되는 것이다.

한편 EC案이 채택된다면 2005년의 OPEC 원유 생산은 OPEC 32.8백만 b/d, 비 OPEC 26.3백만 b/d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의 세계 원유 생산에서 차지하는 OPEC 점유율은 55.5%, 2005년의 OPEC 석유판매 收入은 '91년 불변 \$2,196억이 되는 것이다. EC案 채택의 경우, 2005년에 가서 OPEC은 3.7% 포인트의 시장 점유율 상실과 1.3%의 석유 販賣 收入 감소를 겪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EC案이 채택될 경우의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다. 2005년의 원유 가격은 基本案의 경우는 '91년 불변 \$17.08이나 EC案 채택의 경우는 '91년 불변 18.34달러로 7.4%의 실질적 상승이 초래될 전망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OPEC의 원유 비중이 축소되는데 기인한다.

OPEC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석유소비 절감과 관련되는 선진국의 에너지가격 차별정책을 비판해 왔다. OPEC는 소비국에서 시행중인 석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는 석유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자유 무역을 해치며, 제3세계를 포함하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사우디를 비롯한 OPEC측은 선진국이 추진하는 탄소/에너지稅의 일방적 도입을 우려하며 이는 석유의 가격메카니즘을 왜곡시킨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OPEC는 석유만이 환경파괴의 주 요인이 아니며 이에 대한 접근은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선진국의 에너지/탄소세 도입에 대해 현재까지는 OPEC의 조직화되고 구체화된 대응책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OPEC는 현재 걸프 사태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라크, 리비아에 대한 UN의 경제 봉쇄로 응집력이 약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탄소세 도입 반대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현재 드러난 OPEC의 대응 방향은 ; (1) 석유 시장 왜곡을 가져 올 차별 정책 반대, (2)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의 방지, (3) 제3세계 빈곤 해결에 도움 줄 수 있는 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요약된다. OPEC는 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지구 온난화의 과학적 원인 규명과 방지안의 경제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제3세계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 이전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향후 對 OPEC 원유 수요를 95년에 2,780만 b/d, 2000년에 3,150만 b/d로 전망하면서, 이 수요를 충족시키고 앞으로 발생할 지도 모를 공급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비국과 비 OPEC 국가들로부터의 對 OPEC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통상압력단체 더 나아가서 제3세계의 리더로서의 OPEC 역할이 앞으로 강화될 것 같다. 東歐 및 蘇聯의 변화로 冷戰體制는 종식되고 있지만 經濟競爭은 더욱 심해져 가고 있다. 아울러 세계의 경제블럭화(EC 통합, 북미 자유무역 협정, 아태 경제공동체 움직임 등)와 UR 협상 등으로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중에서 OPEC의 이해관계가 非 OPEC의 그것과 상충(예 : 선진국이 에너지稅 도입과 이에 대한 OPEC의 불만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에는 특정국을 대상으로 한 인위적인 석유공급 제한 조치도 想定할 수 있다. OPEC의 석유생산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中東 산유국이 걸프전쟁의 후유증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어 결속력이 강화되는 90년대 중반경, 이와 같은 경제적 이유에 의한 새로운 석유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表-3〉 OPEC 평균유가(\$/b)

	1월	2월	3월	1/4	2/4	3/4	4/4	연간
1989년	15.20	15.26	16.71	15.73	17.07	16.02	17.44	16.56
1990년	19.04	18.06	16.87	17.99	14.30	23.57	29.23	21.27
1991년	21.24	16.21	16.34	17.93	16.41	17.76	18.55	17.66
1992년	16.15	16.43	16.14	16.24	(17-19)	(18-19)	(19-22)	(17-19)

〈表-4〉 國際 原油價格 展望(OPEC 平均, '90년 불변 \$/b)

	1989	1990	1992	1995	2000	2005	2010
저 유가	17.73	17.62	14.1	15.3	17.4	19.8	22.6
기준유가	17.73	17.62	18.8	20.8	26.4	30.5	33.4
고 유가	17.73	17.62	20.6	25.2	31.8	36.9	40.2